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텝뉴스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닥터 둠'으로 복귀하는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뉴스시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블 최강 빌런으로 컴백

마블을 대표하는 슈퍼 히어로 '아이언맨'을 맡았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마블 세계관 최강 빌런인 '닥터 둠' 캐릭터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 복귀한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케빈 파이키 마블 스튜디오 대표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새로운 캐릭터 '닥터 둠'으로 MCU에 돌아온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닥터 둠의 상징인 초록색 정장 차림에 얼굴 전체를 가리는 가면 쓰고 등장했다. 올리브색 망토를 입은 20여 명의 사이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현장에선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를 영화화한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시리즈의 주역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 영화를 관통하는 이른바 '마블시네마틱 유니버스(MCU)'에서 사라졌다. 특히 그는 이번 복귀를 통해 'MCU'의 대표적인 '슈퍼 빌런'으로 꼽히는 닥터 빅터 폰 둠(닥터 둠) 캐릭터를 연기한다.

5년 만에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오는 그가 침체에 빠진 마블을 되살릴 수 있을지 전세계 마블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한국시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벤져스' 시리즈의 새 작품과 자신의 캐릭터를 공개하며 SNS에 올린 사진. 사진출처=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SNS

#SnackNews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 #김은지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목숨 앗아간 '일본도' 관리제도 허점 있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하며 도검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날 15cm 이상의 도검 구입시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총기류와 달리 도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 신체검사서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갱신할 필요도 없어 소지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더불어 총기는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지만, 도검은 집, 회사 어디서든 보관이 가능하다.



"푸랭이" 대 끊기나 재배농가 7곳 남았다

광주 특산물 무등산 수박의 천년 남게 이어져 온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무등산 수박은 줄무늬가 없어 푸르다는 뜻으로 '푸랭이'라고도 불린다. 조선 시대 왕실 진상품으로 전통과 역사가 깊은데, 당도는 낮지만 특유의 감칠맛이 특징이다. 출하량이 많지 않아 크기에 따라 한 통에 4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판매되는데, 까다로운 재배 조건, 기후위기 등으로 재배 농가가 점차 사라져 1990년대 34농가에서 올해 기준 7농가만 남았다. 푸랭이는 한번 농사지는 땅에 3년간의 휴지가 후 다시 심을 수 있으며, 해발 300m 이상 무등산 기슭에서만 자란다.



사운드아트 거장 '로지 이케다' 광주 온다

일본 대표 전자음악 작곡가 '로지 이케다'가 9년 만에 ACC를 찾는다. 초음파, 주파수, 사운드의 본질적 특성을 연구하는 아티스트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로지는 오는 9월27~29일 ACC 예술극장1-3, 복합스튜디오 등에서 개최되는 'ACT 페스티벌 2024'에 참가한다. 최근 발매 앨범인 '울트라트로닉스(ultratronics)'를 기반으로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를 열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한편 로지는 지난 2015년 ACC 개관에 맞춰 문화창조원 복합1관에서 '테스트 패턴 [n° 8]'을 선보인 바 있다.



'사람 대신 시가' 사라지는 당직 근무

광주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38년간 이어온 당직 근무를 폐지했다. 전국 지자체는 휴일과 평일 야간에 공무원 2~4명을 투입해 당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직 시간대 민원이 대부분 단순 신고 인대 반해 업무 피로도 등 부작용이 커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직 근무를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상황실로 민원 업무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당직제는 지난 2019년 경상도를 시작으로 2020년 전남도, 2021년 경북도, 지난해 강원도 등 점차 폐지하는 추세다. 현재 부산시, 제주도, 경기도 등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